



#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          |     |                                      |    |
|----------|-----|--------------------------------------|----|
| 강원도민일보   | 27면 |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 취임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 1  |
| 강원도민일보   | 02면 | 제2도청사 글로벌본부로 우선 출범...기능 확대 요구 논란     | 2  |
| 江原日報     | 온라인 | 강원도청 제2청사 이전 예상 규모 줄자 지역사회 우려[1/2... | 3  |
| 江原日報     | 온라인 | [포토뉴스]양구 도춘초교 체육관 준공식                | 5  |
| KBS 춘천   | 온라인 | 강원도의의회, 올해부터 조례 181건 연차적으로 정비        | 6  |
| 江原日報     | 02면 | [광고]                                 | 7  |
| 강원도민일보   | 03면 | "불법지시 징계, 공직자 생명 아닌 책임자 본인에 물어야"     | 8  |
| ms투데이    | 온라인 | ‘ 정치 편향성 논란 ’ 강원연구원?이번엔 비정상적 운영 의혹   | 9  |
| MBC 강원영동 | 온라인 | 김기하 도의원, 동해항 주변 주민 피해 대책 촉구          | 10 |
| ms투데이    | 온라인 | 이무철 “ 춘천 봉어섬, 시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     | 11 |
| 강원도민일보   | 10면 | 신축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면수 부족 우려             | 12 |
| 강원도민일보   | 19면 | "교통정체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차로 신설 시급"            | 12 |
| 강원도민일보   | 16면 | 평창 용평면 신설 40주년 기념식 · 면민 걷기대회 성료      | 13 |
| 江原日報     | 15면 | 평창군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                      | 13 |
| 강원도민일보   | 17면 | 횡성군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 14 |
| 江原日報     | 온라인 | 춘천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                 | 14 |
| 江原日報     | 01면 | 김진태 지사에 면담 요청한 삼성 왜?                 | 15 |
| 江原日報     | 04면 | 학폭 '전학 취소 · 지연 책임' 쟁점 재점화            | 16 |
| 강원도민일보   | 03면 |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공수표" vs "발목잡기"          | 17 |
| 강원도민일보   | 05면 | 3월에만 벌써 산불 8건... 봄철 산불 위험 최고조        | 18 |
| 강원도민일보   | 17면 | 홍천군 도내 유일 펠릿형 입상미생물 공급 농가 호응         | 18 |
| 강원도민일보   | 23면 | [사설] 파크골프 산업 주도권 선점해야                | 19 |
| 강원도민일보   | 23면 | [사설] 비행계획과 다른 사고 반복돼서야               | 20 |
| 江原日報     | 19면 | [사설] 지역 발전, 대학과 지자체 상생 협력에서 찾아야      | 21 |
| 江原日報     | 19면 | [사설] 북 미사일 도발, 한미 압도적 대응으로 막아야 한다    | 22 |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0일 (월)  
인물 27면



김광래 제11대 강원도립대 총장 취임식이 최근 도립대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 취임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김광래 제11대 강원도립대 총장 취임식이 최근 도립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교직원 등 200여명의 전국 각지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강릉 명륜고와 관동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명지대 경영학 석사, 건국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외협력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해왔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국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사무처장, 전국 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나가는 대학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시대를 이끄는 중심 대학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래 총장은 “존재 이유가 분명한 작지만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연제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0일 (월)  
종합 02면

# 제2도청사 글로벌본부로 우선 출범...기능 확대 요구 논란

7월 강릉 강원도립대 내 등지  
미래산업국 등 3국 체제 운영  
지역사회 업무 추가 이양 촉구

속보=오는 7월 강릉에 개소하는 강원도청 제2청사(본지 3월 10일자 3면)는 우선, 강원도 글로벌본부(가칭)로 출범하는 가운데 강릉지역사회가 2청사 행정 기능에 문화 부문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영동권 2청사의 환동해시대 거점 역할을 위해 해양·수산업부를 확대하고, 수산업·신소재 등 영동권 특화산업과 관광분야로 2청사 행정 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다. 반면, 강릉지역사회는 관광·문화부서 이전, 영동권 행정중심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회 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등은 지난 17일 오후 강원도립대를 찾았다. 2청사는 강원도 글로벌본부 형태로 먼저 출범하고 도청 일부 국이 도립대 정운관에 임

시 입주하게 된다. 2청사 규모는 도환동해본부를 포함해 1단계로 340여 명 정도로 꾸려지며, 도본청 공무원 약 150명 정도가 이동하게 된다.

김지사는 2청사 강릉 개청을 공약하며 "환동해본부 대신 도청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2청사를 신설, 강릉을 비롯한 영동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3급(부이사관)인 환동해본부장을 부지사급으로 격상하고 신소재·부품·수소 등 영동지역 특화 산업을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약

속했다. 이에 따라 도는 2청사 행정 기능을 해양·수산업부를 중심으로 수산 등 영동권 전략산업과 투자유치, 관광 부문으로 재편한다. 2청사는 사실상의 3국(局) 체제로 운영된다. 도환동해본부와 함께 도본청 산업국이 미래산업국으로 개편되고 도본청 문화관광국의 관광 기능만 2청사로 오게 된다.

이를 두고, 강릉 지역사회에선 문화 부문 추가 이양을 요구하고 있으며 2청사가 영동권 전체 시·군을 아울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선자 강릉예총

회장은 "강릉은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도시인데 문화관광국이 아닌 반쪽짜리 관광국만 옮겨 온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문화부서 이전을 요구했다.

김형익 강릉상공회의소 회장은 "강릉 뿐만 아니라 영동권 6개 시·군으로부터 2청사 운영에 대한 공통 의견을 청취해 제대로 된 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홍규 강릉시장은 "2청사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도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따르겠다"고 했다. 박지은·이연제



江原日報

2023년 03월 20일 (월)  
사회

## 강원도청 제2청사 이전 예상 규모 줄자 지역사회 우려

김진태지사 17일 임시 제2청사 후보지인 도립대 청운관 시찰  
이전 규모 등 놓고 도의장과 1시간 대화... 결론 못 내  
환동해본부에 관광국 미래산업국 등 이전 예상  
권의장 "도청 직원 3,000명 중 120여명 오는 제2청사는 어불성설"



김진태 지사가 지난 17일 강원도청 임시 제2청사 후보지인 강원도립대를 방문해 현지 시찰을 하고, 강원도립대 바리스타제과제빵과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릉=최영재기자



김진태 지사가 지난 17일 강원도청 임시 제2청사 후보지인 강원도립대를 방문해 현지 시찰을 하고, 강원도립대 바리스타제과제빵과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릉=최영재기자

강원도청 제2청사 이전 규모가 당초 예정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동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현행법상 조직 개설이 불가능한 제2청사 대신 (가칭)글로벌지역 본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기존 환동해본부 기능에 관광국·미래산업국의 기능을 더해 7월부터 강릉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무원 직제상 2급 본부장이 총괄 책임을 맡는 구조다.

김진태 지사도 지난 17일 강원도립대 총장 취임식에 이어 도청 임시 제2청사 유력 후보지인 강원도립대 '청운관'을 시찰하는 등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도립대 청운관은 당분간 도환동해본부 건물과 함께 사용될 전망이다.



김진태 지사가 지난 17일 강원도청 임시 제2청사 후보지인 강원도립대를 방문해 현지 시찰을 하고, 강원도립대 바리스타제과제빵과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릉=최영재기자

하지만 이전 규모를 놓고 도청 내부, 의회, 동해안 지자체 간 세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시찰에 앞서 김 지사와 권혁열 도의장이 1시간 가량 의견을 나눴으나, 결국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열 의장은 "도청 제2청사는 고성부터 태백까지 침체된 영동권을 살리고 강원도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데, 도청 직원 3,000명 중 120여명이 근무하는 제2청사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을 통해 자율조직권을 얻어내기 전까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능한 모든 조직과 인원을 다 갖춰 제2청사가 계획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광래 도립대총장 취임식장에서는 강원도립대를 자주 방문해 도청 제2 본청사의 건립 구상도 더욱 신중하게 결정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도립대 청운관 시찰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김광래 강원도립대총장을 비롯한 강릉지역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김 지사는 대학 바리스타제과제빵과 학생들의 요리를 시식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19일 (일)  
사회

## [포토뉴스]양구 도촌초교 체육관 준공식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도촌초교 체육관 힘찬누리터 준공식이 지난 17일 현지에서 서흥원 군수와 이재학 교육장, 이기찬 도의회부의장,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년 03월 17일 (금)  
강원

## 강원도의회, 올해부터 조례 181건 연차적으로 정비



강원도의회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조례 181건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 조례의 대다수는 조문 내용 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하고,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폐지해야 할 조례도 7건이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번 조례 정비를 위해 입법 평가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승룡



## 설악산

# 오색케이블카 미래 모색

강원도와 양양군의 41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 협의가 마무리 됨에 따라 강원관광의 도약이 기대되어 전문가 초청 포럼을 열어 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를 모색하려 합니다.

### 특별자치시대 강원관광의 새도약 -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포럼

- 일 시 : 2023년 3월 21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양양문화예술회관 중회의실

#### [발 제]

- 유승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 [종합토론]

- 강상국 강릉원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 김창규 강원도산림환경국장
- 진종호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장
-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 전용우 양양군노인회장

주최/주관 : 강원도, 강원도의회, 양양군, 강원연구원, 강원일보사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0일 (월)  
종합 03면

# “불법지시 징계, 공직자 생명 아닌 책임자 본인에 물어야”

### 도의회 5분 자유발언

김기홍, 고위공직자 사망 건 언급  
정재웅, 강원학연구센터 개혁 요구  
심오섭, 청소년올림픽 전략 강구  
이무철, 봉어섬 친환경사업 추진  
김기하, 동해항 항만대기 관리를



김기홍 정재웅 심오섭 이무철 김기하

춘천 레고랜드 사업, 평창 알펜시아 매  
각 문제로 최문순 전 지사를 비롯해 관  
계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  
데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지시 등이 있  
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원도의회  
에서 나왔다.

김기홍(원주) 도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  
분 자유발언에 나서 레고랜드 사업 연  
계 건으로 추정되는 고위공직자 사망  
(2월)을 언급하며 “불법적 지시에 대한  
징계는 더 이상 공직자의 생명 아닌

책임자 본인에게 오롯이 전가돼야 한  
다”고 한 뒤 “전임 지사가 주변 도유지  
를 함께 매각해주겠다는 문서에 서명  
하라는 지시를 강원도개발공사 측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불법적 지시  
를 거부하지 못해 서명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재웅(춘천) 의원은 “강원연구원은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재해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친국  
세미나 등 친기업문화 육성 사업을 펼치  
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센터 개혁방안을 요구했다.

심오섭(강릉) 의원은 2024 강원동  
계청소년올림픽을 두고 “다양한 불법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심을 얻기

에는 역부족”이라  
며 △정부 지원과  
협력유도△마케팅  
을 통한 기업 후원  
유도△메타버스구  
축 등 온라인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이무철(춘천) 의원은 “춘천 의암호  
내 봉어섬 사업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시설비 275억원으로, 당초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고,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은미관을 해치는 부정적인 시설로 인식  
되고 있다”며 봉어섬 친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을 촉구했다. 김기하(동해) 의  
원은 “송정동 주민 8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래, 기침 등 호  
흡기 계통의 증상을 호소한 비율이  
32.4%로 대조지역 (23.8%)보다 높았  
다”며 “정부와 강원도가 동해항 주변 항  
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은 물론,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도의회는 이날 317회 임시회를 폐회  
했다. 다음달 임시회는 4월11일 열린  
다.

이설화 lfi@kado.net



## '정치 편향성 논란' 강원연구원?이번엔 비정상적 운영 의혹

진광찬 기자

정재웅 도의원, 강원학연구센터 지적  
"현 원장 취임 후 부적절 인사·업무"  
강원학 비전공 센터장·친 기업화 비판  
정 의원, 강원연구원 연속 고발 예고



정재웅 강원도의회원이 지난 17일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원연구원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부적절한 인사와 감사 제외 등 정치 편향성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던 강원연구원이 방만 운영 의혹을 받고 있다.

정재웅 강원도의회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연구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강원연구원 내 설립된 강원학연구센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취임 이후 강원학 정립과 발전을 위한 사업들은 밀려나고 부적절한 인사 배치와 업무 내용을 보인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2018년 강원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상 올해까지 예산 15억원, 인력 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중단기적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 예산 2억7700만원과 2명의 인력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강원연구원 도비 출연금이 지난해 대비 8억원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원학연구센터에 배정된 도비 지원금은 2억원으로 올해 1억5000만원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2020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원학연구센터가 지역학 임무를 수행하고 인력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지속 요청했다"며 "현재 정규직은커녕 센터 설립 초기보다 적은 단 2명의 계약직 연구원과 1명의 센터장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10월 설립된 강원학연구센터는 도내 기관, 학회 등과 교류하며 지역학 학문적 토대를 만드는 기관이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임명된 센터장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원학과 어울리지 않는 점, 이와 관련한 운영 행태도 비판했다.

현재 연구센터는 강원학과 아무 관련 없는 분권연구실 산하에 배치돼 있으며, 지난 2월 임명된 센터장은 강원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원연구원 산하 강원학연구센터가 '친기업'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강원연구원 전경. (사진=MS투데이 DB)

또 강원연구원이 강원학연구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없이 '친 기업문화' 육성 사업에 나서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정 의원은 "강원학연구센터는 총 3회에 걸쳐 경제발전, 기업규제, 기업이 정신에 대한 '기업 천국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며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기업천국'이라니 무개념의 터무니 없는 운영 행태라고 지적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 담당 부서와 협의도 없이 최근 또다시 커피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적극적으로 센터 개혁 방안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물아세웠다.

특히 정 의원은 강원연구원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니라며 연속해서 운영 실태를 짚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해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현 원장을 임명할 당시부터 정치 편향성을 두고 야권의 지적을 받아 왔다. 올 초에는 정기 주최하는 '아침공부포럼' 제외 감사 정치색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mbc** 강원영동

2023년 03월 17일 (금)  
강원

## 김기하 도의원, 동해항 주변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김인성

김기하 강원도의회이 오늘(17) 열린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원도가 동해항 주변의 환경 오염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979년 개항한 동해항은 석회석과 시멘트 등 연간 3천만 톤 가량의 중금속과 먼지가 날리는 화물을 처리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해항이 있는 동해시 송정동 일대는 대기 중 망간 농도가 망상동보다 열 배 넘는  $\text{m}^3$ 당  $0.41\mu\text{g}$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는 등 환경 오염 피해가 심각하다며 강원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이무철 “춘천 봉어섬, 시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진광찬 기자

도의회 제317회 본회의서 현 실태 지적  
미관저해 시설·당초 계획 지지부진 비판  
30만㎡ 도유지 무상 임대, 수익금 4.3%뿐  
“관광·교육 가능한 친환경 조경 조성해야”



이무철(춘천4) 강원도의회원은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춘천 봉어섬 개선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춘천 의암호 내 봉어섬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한 채 미관만 해치고 있어 이를 재탄생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무철(춘천4·국민의힘) 강원도의회원은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춘천 봉어섬 개발사업이 소극적임을 지적하고, 친환경 공원으로 다시금 완성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봉어섬 개발사업은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부적절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봉어섬은 수도권 상류 상수원에 위치해 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실제로 환경부는 1993년 봉어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2006년 1월 당시 강원도지사는 미국 파워라이트사, 신태양에너지주식회사와 함께 봉어섬에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돌연 발표했다.

이 의원은 “당시 도는 봉어섬에 1000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발전단지 주변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전망대 등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었다”며 “완공되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 연간 관광수익 56억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현재 투자규모는 275억원으로 당초 4분의 1 수준에 그쳤고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은 미관을 해치는 부정적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0만㎡에 달하는 땅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지만, 수익금은 극히 일부인 점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봉어섬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상황은 전력판매 수입금 326억4000만원과 향후 5년간 수익금 155억원 등 약 481억원 예상되지만, 이중 강원도 수입은 4.3%인 22억원이 전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향후 도에서는 기부채납으로 돌려받은 봉어섬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 동안 운영해 203억원을 예상수익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 가속화로 이 수익이 날지는 의문”이라며 “도는 태양광 시설 모듈 쓰레기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춘천 의암호에 있는 봉어섬. 이무철(춘천4) 도의원은 봉어섬 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미관저해 시설로 꾸준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사진=MS투데이 DB)

또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상공에서 보이는 봉어섬은 미관저해 시설로 꾸준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초 계획대로 관광과 체험교육이 가능한 친환경 조경 조성사업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27년까지 지금처럼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은 소극 행정”이라며 “2028년부터 기부채납되는 봉어섬에 대해 도와 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봉어섬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어 “봉어섬은 자연 그대로 모습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도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봉어섬으로 바뀌어야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0일 (월)  
지역 10면

### 신축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면수 부족 우려

시 신축 설명회서 대책 필요 제기  
“주민 4만7000명” 주차 91면 질책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가  
울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가  
운데 주차면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  
려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는 최근 신축현장인 퇴계동  
1234번지 일원에서 임미선 도의원,  
배숙경·박노일·정재예 시의원, 주민  
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계동 행정복지  
센터 신축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  
에선 행정복지센터 주차면수가 지하  
1층 74면·지상 17면 등 총 91면으로  
부족, 주차 대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숙경 시의원은 “퇴계동은 4만

7000여명이 살고 있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동네”라며 “행정처리가 필요  
한 민원인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들  
으러 오는 주민, 출·퇴근하는 직원들  
의 차량까지 감안한다면 주차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시는  
당초부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한 차례 주차  
면수를 늘리고 법정 주차 대수보다  
도 더 많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개에 달하는 퇴계동  
자생단체를 위한 업무 공간도 필요하  
단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승은 퇴계

동통장협의회장은 “자생단체를 위해  
임원회의나 운영회의를 비롯해 프린  
트 등의 업무라도 볼 수 있는 작은 공  
간이라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밝  
혔다. 시 관계자도 “자생단체들의 의

견을 수렴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대  
책을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퇴계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며, 울 연  
말 준공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승은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0일 (월)  
지역 19면

### “교통정체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차로 신설 시급”

강정호 도의원, 조속 추진 촉구  
주차장 앞 우회전 전용차로 등  
지정체 불편해결 도로개선 요구

주말과 성수기마다 극심한 교통체증  
을 겪고 있는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일대  
에 도로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  
기됐다.

강정호 강원도의원(속초·사진)



은 19일 “지난해 속초경  
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위원회의 조건부 가결된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의 도  
로구조개선과 우회전 전  
용 1개 차로의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  
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속초시에는 통계작성 이후  
최대인 총 1950만명의 관광객이 방  
문했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에 따르면 강원도내 주요관광지의

Top 30에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이 1위  
를 기록했다.

그러나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대형주  
차장에 진입을 위한 차로(우회전)가  
1개 뿐이어서 매년 정체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같은 교통정체는 현재 입주  
가 진행중인 롯데캐슬과 추진중인 중  
앙동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더  
욱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다.

이에 강정호 의원은 지난해 속초경

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서 조건  
부가결한 ‘대형주차장 앞 도로에 우  
회전 전용 2개 차로 신설’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  
아오는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의 교통정  
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속초시의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0일 (월)  
지역 16면



평창군 용평면 신설 40주년 기념식 및 용평면민 걷기대회가 지난 18일 오전 용평면 돔경기장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최종수 도의원,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주민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 평창 용평면 신설 40주년 기념식·면민 걷기대회 성료

평창군 용평면 신설 40주년 기념식 및 용평면민 걷기대회가 지난 18일 오전 용평면 돔경기장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최종수 도의원,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주민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재국 군수

가 대한민국 최초로 무보급 단독 남극점 도달의 기록을 세운 용평면 출신 산악인 김영미 씨에게 '자랑스러운 용평면민상'을 전달하고 진뚜루마중길 2km를 걷은 후 기념 공연과 경품추첨 등으로면민들의 화합을 다졌다.

신현태

## 江原日報

2023년 03월 20일 (월)  
지역 15면

### 평창군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

【평창】평창군의 자원봉사 릴레이가 본격 시작됐다.

평창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7일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자원봉사 참여 다짐을 위한 '2023 평창군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을 개최한 데 이어 18일 평창군 사회복지센터에서 '평창군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2023 평창군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은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들,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이덕하 강원도자원봉사센터장, 고흥재 평창군자원봉사센터장과 평창군지역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원봉사 릴레이는 올해 총 56개 단체, 749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총 10일간을 '집중 활동 기간'으로 정해 자원봉사단체가 서로 릴레이기를 인계·인수하며 환경정화, 캠페인 등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평창군 가족봉사단 발대식에는 고흥재 센터장과 함께 가족봉사단 23개 가족 64명이 참석했다.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재가활동, 환경정화활동,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상원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0일 (월)

지역 17면



**횡성군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제2회 횡성군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이 최근 횡성향교웨딩홀에서 김명기군수, 김숙자 횡성소방서장, 정대용·김영숙 횡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남여회장, 한창수·최규만 도의원, 함종국 도정 협력관, 지역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 江原日報

2023년 03월 19일 (일)

사회

### 춘천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

유공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 진행  
초청 내빈 비롯한 150여명의 소방대원 참석

춘천소방서는 지난 17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유공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주영아 남산여성의용소방대장이 장관표창을, 남궁찬 서면남성의용소방대장이 소방청장 표창을, 김영자 동면여성의용소방대장과 임준옥 동산여성의용소방대장이 도지사상을, 장도순 남산남성의용소방부대장이 도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박기영·양숙희·이무철·박찬홍 도의원을 비롯한 초청 내빈과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진복 춘천소방서장은 "춘천시민이 평안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지역의 곳곳에서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김진태 지사에 면담 요청한 삼성 왜?

반도체 관련 여부 촉각 ... 道 “세부일정 확정 안돼”

삼성과 강원도 간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는 삼성 측에서 먼저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삼성은 최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향후 20년간 300조원, 충청과 경상, 호남 반도체 연관 첨단산업에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직후 강원도와 김진태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이 주목받는 것은 강원도와 삼성의 만남 자체도 이슈이지만 연락이 된 ‘시점’이 절묘해서다. 삼성은 지난 15일 정부의 ‘용

인 등 경기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 직후 부산, 광주, 세종, 구미, 거제 온양, 천안, 아산 등에 60조원을 투자하는 지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원주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정부는 물론 삼성의 투자 계획에서도 제외돼 대책 마련에 부심한 상태였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삼성의 미팅 목적에 대해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강원도는 삼성이 연락을 해 온 시점으로 미뤄볼 때 ‘반도체’ 때문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주 삼성반도체 유치’라는 공약을 내놓

았고 당선 직후에도 삼성 측과의 직·간접적인 접촉도 있었던 만큼, 이번 삼성의 지역 투자계획에 대한 강원도의 실망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 측이 15일 지역 투자계획에서 원주가 빠진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 김 지사와의 만남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계적 그룹인 삼성이 본인들의 자체 투자계획에 대해 굳이 강원도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원주 반도체와 관련한 또 다른 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 관계자는 “삼성 측과 만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세부 일정과 주제 등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20일 (월)

사회 04면

# 학폭 '전학 취소·지연 책임' 쟁점 재점화

野 오늘 정순신TF 기자회견  
전학 취소 위원 외압 여부 판건  
道·민사고 결과 통보 이견 여전

속보=야당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가해학생의 전학 취소 처분 및 전학 지연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 TF는 2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사고 방문 결과발표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17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민족사 관고를 찾아 현장 점검(본보 지난 16일자 4면 보도)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느냐다. 2018년 5월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를 민사고에 통보했다. 앞서 3월22일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 결정에 대해 가해 학생이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자, 가해 학생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징계조정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됐으며 전학 취소 결정이 이뤄진 회의에는 4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 TF'는 지난 17일 횡성 민족사관고를 방문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사건 당시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확인했다. 강득구, 강민정 의원이 한민위 교장과 대화를 나누며 기속사로 향하고 있다. 횡성=박승선기자

민사고 방문에서 “교육청 징계위에 피해 학생은 혼자 출석해 진술했는데 가해 학생은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다”며 “이런 재심 방식이 적정한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 언어 폭력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당시 회의 참석위원 4명에게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도 14일 강원도교육청을 찾아 당시 징계위 회의록 등을

살펴보며 전학 취소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부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외압은 없었다고 한다. 추후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가해 학생의 전학 지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 역시 진행 중이다. 민사고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심판(재심결정 취소) 및 2, 3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전학이 지연됐다고 밝히

고 있지만 강원도는 문서와 유선으로 분명히 통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원도교육청이 권역별로 배정하는 학폭위 지원 변호사는 지원자가 없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가해 학생과의 분리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0일 (월)

종합 03면

###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공수표” vs “발목잡기”

금도를 넘어선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 김 지사 공약 놓고 여야 온도차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인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놓고 도내 여야의 온도차는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김우영)이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수표”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유상범)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 도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강원도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 자체를 유보했다”며 “공업용수 부족문제와 전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못해 공모 경쟁조차 나설지 못한 것으로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 결국 공수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수

및 전력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기업 부담이 원칙인데 용수사업비 6000억원, 전력공급비 5000억원이 소요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강원도가 실패하기만 바라며 고사를 지내는가”라고 반문한 뒤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산업은 단 한 개도 없다. 이는 12년 민주당 무능·도정의 참담한 성적표”라고 했다.

또, “국비 200억원을 확보한 반도체 교육센터가 개소하고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유대학 사업이 추진되는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소중한 새싹이 텴다”며 “강원도반도체 투자에 초를 치는 민주당의 행태는



## 강원도민일보

# 3월에만 벌써 산불 8건... 봄철 산불 위험 최고조

2023년 03월 20일 (월)

사회 05면

평창 산불 8시간 52분만에 잡아  
진화 장기화에 한때 산불 1단계  
3년간 3~5월에 산불 54% 발생  
산불조심기간 총력 예방 방침

강원도내 전역에 건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이 속출하는 등 봄철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3월 중 벌써 8건의 산불이 발생, 약 16.4ha의 강원 산림이 불에 탔다.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8분쯤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15ha를 태우고 약 8시간 52분만인 19일 오전 1시 30분쯤 불길은 잡혔다. 야간 진화작전 당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까지 동원해 밤사이 불길을 막기 위한 사투가 벌어졌다.

진화 당시 현장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8m의 바람이 불고 경사가 심한 지형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진화가 장기화되자 산림당

| 일자     | 장소(면)                    | 피해 면적  |
|--------|--------------------------|--------|
| 3월 3일  |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주택화재 비화)    | 0.03ha |
| 3월 6일  | 황성군 서원면 석화리 (쓰레기 소각)     | 0.15ha |
| 3월 6일  |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조사중)        | 0.01ha |
| 3월 11일 | 홍천군 서면 개마리 (조사중)         | 0.15ha |
| 3월 14일 | 홍천군 영귀미면 삼현리 (불씨 비화)     | 0.1ha  |
| 3월 16일 | 영월군 남면 연당리 (전선 단락 추정)    | 0.05ha |
| 3월 18일 |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농산물 부산물 소각) | 0.9ha  |
| 3월 18일 |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화목보일러 재추정)  | 15.0ha |

국 등은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을 기점으로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1단계는 '예상 피해규모가 10~30ha 이상', '평균 풍속 초속 2~4m 이상', '예상 진화시간 3~8시간 이상'일 경우 내려진다. 산불이 확산하자 인근 주민 7명은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산림당국은 화목보일러 재를 버리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8분쯤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산 95-3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15ha를 태우고 8시간 52분만인 19일 오전 1시 30분쯤 주불이 진화됐다. 산불진화대원들이 야간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가해자를 입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3시 45분쯤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의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헬기 4대와 장비 19대, 인력 170

명을 투입해 약 2시간 55분만인 오후 6시 40분쯤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불은 인근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 가해자로 추정되는 80대 여성이 안면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옮겨졌다.

이번 평창 산불을 계기로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봄철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20년~2022년) 발생한 산불 총 206건 중 3~5월에만 112건 (54.4%)이 발생했다. 4월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3월과 5월이 각각 27건으로 나타났다. 벌써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8건의 산불이 발생해 16.4ha가 소실됐다. 축구장 면적 (0.7ha) 약 23개와 맞먹는 강원 산림이 불에 탄 셈이다.

봄철 산불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전역 건조 특보가 내려지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와 도소방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대형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건조한 날이 지속돼 지속적으로 산불이 속출하고 있다"며 "산불조심기간 동안 화기 취급을 철저히 관리해 산불조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현태·신재훈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0일 (월)

지역 17면

### 홍천군 도내 유일 펠릿형 입상미생물 공급 농가 호응

#### 5년간 수요 100t 늘어나

홍천군이 강원도내 유일 펠릿형 입상미생물을 공급해 지역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본지 확인 결과 도내에서 홍천군에서만 생산, 보급되는 펠릿형 입상미생물은 상온 보관·활용이 우수하고 악취 저감과 퇴비 부숙 등 효과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최근 5년간 농·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유용미생물 수요를 조사한

결과 100t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유용미생물 배양기 4대를 증설하는 등 적극적인 보급지원에 나섰으며 올해는 800t을 공급할 계획이다.

군은 액상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하고, 생산하고 있는 입상미생물의 경우 시중제품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에서는 10억여원의 경영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시명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0일 (월)

사설/칼럼 23면

### 파크골프 산업 주도권 선점해야

-전국서 경제효과 겨냥 경기장 조성 경쟁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한 데다 운동 효과가 뛰어나 어르신들 사이에 건강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엔 50대 장년층의 발길도 이어져 관련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선 경쟁적으로 경기장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주변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돼, 동호인 유치에 열을 올립니다. 도내에서도 시군마다 파크골프장 조성과 대회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지자체는 타지역보다 빨리 시장을 선점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파크골프 회원 수는 2022년 10만 6000여명으로 1년 새 66% 급증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무려 6배 이상 회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장소가 대부분 도시공원이나 체육공원 등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골프장이 용료가 평균 18만~25만원 선인 반면, 파크골프는 2000~1만 5000원 대로 경제적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또한 기존 골프장보다 축소된 형태여서 운동 중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매력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북과 충북, 경남, 진주 등 지자체는 최고 1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크고 작은 경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파크골프장이 없는 지역이 없을 만큼 기반 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경우 북한강변에 천연잔디로 조성된 산천어 파크골프장을 무대로 대규모 대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해피 700배 강원도 파크골프 대회'를 열어 파크골프 대표 도시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파크골프의 입지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고령화 비중이 갈수록 늘어 관련 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천혜의 환경과 어우러진 파크골프장은 새로운 여행 자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통해 특수를 모색할 여지도 많습니다. 지역의 유동 인구를 늘려 경기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요식업과 숙박업은 물론,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 경기도 부양시킵니다. 도와 지자체가 파크골프라는 황금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과 정책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0일 (월)  
사설/칼럼 23면

### 비행계획과 다른 사고 반복돼서야

-석달 새 연이은 헬기 추락, 구조적 문제 파헤치길

강원도 산불 업무용 헬기로 계약, 임차운 영해온 헬기가 3개월 만에 또다시 추락해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11월 양양에서 발생한 헬기 사고와 마찬가지로 3월 15일 영월에 추락한 헬기 역시 당초 제출한 비행계획과 달리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사안의 심각성이 큼니다. 영월군 북면에 추락한 소형 헬기는 강원도가 산불 감시 계도 및 진화 업무를 목적으로 임차된 헬기입니다. 사고 당일엔 전후해안전 점검과 정비를 목적으로 헬기를 교체했는지 등 더 정밀하게 규명해야 할 지점이 있긴 하지만, 사고 헬기가 당초 제출한 비행계획과는 달리 운항한 것은 분명합니다.

비행계획에는 운항 지역이 추락지점과는 전혀 다른 춘천, 홍천, 인제, 화천 지역입니다. 운항 목적 또한 순찰관이 아닌 화물 운송이었습니다. 사고 헬기는 한국전력 원주지사에서 발주한 송전탑 유지 보수 작업자들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로프를 운반하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자재가 송전탑 전선에 걸리면서 조종사와 탑승한 관련 업체 직원 2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석달 여전인 작년 11월 27일 양양군 현북면에 추락해 5명의 사망자를 낸

산불 업무용 헬기 사고 역시 제출한 비행계획서와는 달리 산불 업무와 무관한 민간인이 탑승했습니다. 헬기는 험악한 산간 지형의 강원도 봄가을철 산불 감시와 진화에 특화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민간업체 공급사정은 달리는 형편입니다. 양양 추락사고를 계기로 헬기 선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한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올해부터 강원도에서 일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비행계획과 다른 헬기 운항이 확인됨으로써 산불 헬기 운영 관리 감독의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헬기 추락은 인명 피해를 물론 산불로 번질 경우 초대형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비행 경위와 기체 결함 여부 조사에 치밀해야 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연간 60억원대를 투입하는 산불 업무용 헬기 관리와 운항 실태를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석달 사이에 발생한 두 건의 헬기 추락사고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운영 결함과 구조적인 허점을 찾아내 개선해야 더 큰 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江原日報

2023년 03월 20일 (월)

사설/칼럼 19면

## 지역 발전, 대학과 지자체 상생 협력에서 찾아야

인구의 감소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로 직결된다. 상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한 대학에 1,000억원을 투입하는 ‘글로벌대학’ 사업에 강원도 내 6개 대학은 자격 미달로 신청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에 더욱 그렇다. ‘글로벌대학’은 지역의 산업과 성장의 중심이 되는 세계적 대학을 의미한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미지원 대학,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은 이에 지원할 수 없다.

도내에서는 가톨릭관동대와 상지대, 4개 전문대 등 6개 대학이 해당된다. 나머지 도내 대학들은 대학 단독으로 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혁신 방안을 제시하거나 ‘1도 1국립대’ 형식의 과감한 혁신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대학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시범사업에 강원도가 탈락,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높다.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보면서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과 소임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은 그 지역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유형·무형의 기여를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창달은 그 한 예다.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지식정보화사회, 지속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평생학습사회, 모든 경계가 물리적·화학적 차원에서 무너져 내리고 합쳐지는 융·복합 시대 속에서 원리와 체계를 세워주

고 있다. 유형과 무형의 세계, 미시와 거시의 세계를 이어주는 철학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아무래도 대학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보더라도 지역의 대학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역할과 소임이 막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는 특히 인문학 및 순수예술과 같은 영역을 전공한 대학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 상주, 지역사회가 그들이 터득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식 생산 연계망을 지역사회의 공공영역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박물관·미디어센터와 같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설물을 건립하고 늘려 나감으로써 지역문화를 창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탈락

도내 6개 대학 ‘글로벌대학’ 신청 못 해”

대학-지자체, 역할·소임 재인식해야 할 때

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지역의 품격을 고양시킬 수 있다. 지자체의 이러한 정책과 지원은 대학을 학교기업화·취업기관화하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욱 중요하다. 모르는 사이에 대학의 교육적·학문적·사회비판적 가치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오로지 경제적 가치만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 바로 대학을 대학답게 살려주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대학과 지자체는 그 지역의 경제적·정신적·문화적 차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역할과 소임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길이다.



# 江原日報

2023년 03월 20일 (월)

사설/칼럼 19면

## 북 미사일 도발, 한미 압도적 대응으로 막아야 한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 들어 벌써 일곱 번째다. 또 지난 16일 ICBM 발사 이후 사흘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5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800여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고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북한은 2~3일 간격으로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잠수함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16일 ICBM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6일 ICBM 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이 지속되고 확대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보 태세 강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는 13일부터 11일간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합연습에 돌입했다.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속칭 ‘참수작전’으로 통용되는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나이프) 등 20여 개 실기동 훈련이 포함됐다. 대규모 실전 훈련이 2018년 중단된 뒤 5년이 지나서야 부활한 셈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FS 연습을 빌미로 한미 간 균열을 노리면서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화성-17형 ICBM의 정상 각도 발사,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정세 관리와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물론 북한의 도발을 막는 최상의 방책은 두말할 것 없이 도발로 얻을 보상은 없고 더 큰 보복만 당한다는 사실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FS 연습에서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비한 맞춤형 실전 훈련으로 설계된 만큼 방어·반격·점령 등 다양한 연습 시나리오를 반복 훈련해 실전 능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FS 연습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한미 연합 실전 훈련을 벌이고 핵추진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 등 각종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상시 전개 시스템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